



2022년 6월 30일  
가톨릭 사이타마교구 교구장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주교

## 코로나 19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하여(제 23 차)

코로나 19의 현상황을 고려하고, 지난 6월 20일에 있었던 사제·부제 모임에서 들었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사이타마교구로서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 주일미사(특전미사 포함)의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와 같습니다.  
또한, 미사는, 「일본어 미사」 혹은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며, 신자들의 기도나 독서의 일부를 외국어로 행하는 미사」 만 허가합니다.
2. 미사의 그룹 나누기에 대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지, 줄일지에 대한 판단은, 각 성당의 조건이 다르므로, 각 성당의 판단에 맡깁니다. 주임신부와 사목위원회 등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3. 노래하는 것에 대해 (성가, 화답송, 주님의 기도 등)  
마스크를 착용할 것. 독창(솔로), 성가대, 함께 작은 목소리로, 어찌하든 각 성당의 판단에 맡깁니다.
4. 영성체에 관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입으로는 영하지 않을 것 등 변경은 없습니다.
5. 복사 등 제단봉사에 대하여  
감염방지에 대한 기본주의사항(마스크착용, 손소독 등)을 지켜주십시오.
6. 회의나 강좌 등의 인원수 제한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3m의 회피 등 감염방지에 주의를 하실 것을 전제로 각 성당에 판단을 맡깁니다. 그리고 미사후 등 많은 인원에게 의한 음식물 파티 등은 당분간 더 금지 합니다.